

‘시설채소 바이러스병’ 체계적 관리로 예방

농진청, 바이러스 저항성 종자 구매·육묘장 출입구·축창에 방충망 설치

기후변화 영향과 시설 채소 재배 증가로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철저한 예방 관리로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채소 바이러스병은 주로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해충을 매개로 감염된다. 대표적으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종은 본밭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생산하고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철저한 예방 관리로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종자를 선택하고, 육묘장 출입구·축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병원균과 해충을 미리 차단한다. 육묘 관 바닥과 주변을 정기적으로 정리, 소독하고 덫(트랩)을 설치해 해충을 방제한다. 진딧물이나 가루이 방제에는 노란색 끈끈이 덫(트랩), 총채벌레 방제에는 청색 끈끈이 덫(트랩)을 설치하면 효과가 높다. 약제로 해충을 방제할 때는 작물과 해충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교차 살포한다.

잎말림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종자를 구매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도 병행한다. 육묘장 바깥에 있는 잡초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크므로 출입구와 축창에 방충망을 설치해 병원균과 해충을 미리 차단한다.

육묘 관 바닥과 주변을 정기적으로 정리, 소독하고 덫(트랩)을 설치해 해충을 방제한다. 진딧물이나 가루이 방제에는 노란색 끈끈이 덫(트랩), 총채벌레 방제에는 청색 끈끈이 덫(트랩)을 설치하면 효과가 높다.

약제로 해충을 방제할 때는 작물과 해충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교차 살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봄철에는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매개 해충을 집중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바이러스병이 의심되는 농가에서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병 감염을 진단하고 피해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이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이동 라운지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Bravo Korea Moving Lounge) 1호' 운영을 시작한다.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1호’

전북은행, 국내 체류 외국인 위해 운영 시작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이동 라운지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Bravo Korea Moving Lounge) 1호' 운영을 시작한다.

움직이는 외국인 전용 라운지인 전북은행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는 영업점 방문이나 은행 어플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등을 위해 오픈했으며, 어디서든지 전북은행 어플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탑재 및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이동 및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고객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북은행의 브라보 코리아 브랜드

를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1호는 JB브라보 코리아 부산 라운지가 위치해 있는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 할 예정이며 추후 전북은행 안산 라운지 및 동대문 외국인 영업 센터에 소속을 두고 2, 3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브라보 코리아 무빙 라운지 운영으로 국내 외국인 고객들의 금융에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양한 외국인 맞춤 서비스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기자

전북은행, 외국인 대상 'JB카드 브라보 코리아+ Festival'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3월 외국인 플랫폼 브라보 코리아 오픈에 맞춰 1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JB카드 브라보 코리아 플러스 페스티벌(BRAVO KOREA+ Festival)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 브라보 코리아 플러스 체크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중 누적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브라보상' 1명에게 아이패드 '코리아상' 4명에게 에어팟 '플러스상' 20명에게 JB기프트카드 10만 원, '참여상' 200명에게 편의점 쿠폰 1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JB 브라보 코리아 플러스 체크카드로 세금, 보험료 납입에서 건별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상 납부 시 각 2천원, 5천원, 1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별도의 응모 없이 고객별 월 1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246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금융 생활은 일상에 꼭 필요한 만큼 외국인 고객의 불편을 덜고 최상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로 강소기업 만든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참여기업 4월 10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돌음, 도약, 선도, 혁신기업 총 51개사를 선정해 9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성장사다리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기업에는 ESG 의무 지원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며, 역행기업 방지 항목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모집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돌음기업(1~10억 원) △도약기업(10~50억 원) △선도기업(50~1,500억 원) △혁신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 &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으로 구분된다.

돌음기업(1단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를 선정해 총 27억 원을 지원하며, 3년간 기술개발(R&D),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ESG 경영 확산 사업 등을 지원한다.

도약기업(2단계)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하는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총 17억 원을 지원하며, 3년간 R&D, 사업화 마케팅, 컨설팅, ESG 경영 확산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선도기업(3단계)은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해 총 47억 원을 지원하며, 5년간 R&D, 마케팅, 기업공개(IPO) 지원, ESG 경영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기업(4단계)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4개사를 선정해 총 5억 원을 지원하며, 3년간 R&D 사전 기획 컨설팅,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사업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통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들은 서류심사(4월) → 현장심사(5월 초) → 발표평가(5월 말)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초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0만호 기자

전주농협, 콩나물콩 생산자협의회에 재해지원금 지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날 21일 이상가후로 인한 콩 피해확산으로 콩 생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콩나물콩 생산자협의회에 300만원의 재해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협 자체조사 결과 현재 수매한 콩에서도 상품성 저하로 인해 상품 비율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전달식은 전미동 IS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주농협을 대표해 박건후 교육실장이 이대연 콩나물콩 생산자협의회 회장에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박건후 실장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대연 회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해 주신 전주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생산자협의회도 더욱 노력하여 안정적인 콩나물콩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주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 극복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0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